시 론

야당이 야당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통상 이 시점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3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취 간의 인내할 수 있는 격차가 커지고, 대통령의 핵심 지지 계층에서 균열과 이탈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 문 대통령 지지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런 패턴이 재연될지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안·알앤써치가 추석 직후에 실시한 조사(10월 5~6일)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3%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3.2%였다.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6%p 급락한 44.6%, 부정 평가는 18.8%p 급등한 51.7%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0개월을 회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정부는 정책 실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줄기차게 야당 탓, 언론 탓을 한다.

가령,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자 보수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탓으로 돌렸다. 정부의 미숙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생경제가 나빠져도 야당의 정치 공세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정책 방향(목적)이 옳으면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잘못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

둘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위선의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집권 세력은 줄곧 표현의 자유를 외쳤지만 자신들을 비판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권력을 이용한 특권과 반칙이 판을 쳤다. 문 대통령은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해 놓았지만 정작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자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셋째,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닮아 가고 있다. 현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가치만 옳다고 주장하고, 국민을 노골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로 야당과의 대화·타협은 실종되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8월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라는 기사에서 "현 정부가 민주를 표방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촛불로 탄생한 자칭 민주주의 정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의 독특한 인지 스타일,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학습, 소위 '문빠 팬덤 정치'에 대한 과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은 야당이 야당답지 못한 것이 핵심 이유다. 야당은 분열되고, 무능하고, 비겁해서 2016년 총선 이후 지난 네 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패했다.

그런데 야당은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여전히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 하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정당에 국민이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국갤럽 조사(9월 22~24일)에 따르면, 국민의 힘에 '호감이 간다'는 비율은 겨우 25%였다. 18~29세와 3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15%와 17%에 불과했다. KBS 조사(9월 26~28일)에서는 국민의 힘 쇄신 노력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38.6%인 반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39.4%) 또는 '모르겠다'(22.0%)라고 했다.

집권 세력이 유례없는 야당 복을 타고 났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호감도 가지 않고 혁신도 제대로 못하는 야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야당보다 가수 나훈아의 말에 더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언컨대, 야당이 힘이 있어야 정부 여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못한다. 보수 야당은 참회하고, 실력을 쌓고,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의료칼럼

환절기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신준혁
수완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 큰 일교차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원인 인자에 대한 체내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맑은 콧물, 코 막힘, 발작성 재채기, 코 점막의 가려움 등의 주요 증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 외에도 눈 주위 가려움, 눈 충혈,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결막염,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환자에 따라서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기도 하고 일년 내내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은 식물의 꽃가루 시즌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계절과 관련 없이 통년성으로 발생하는 비염의 경우 집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가벼운 경우 재채기와 같은 증상들이 감기 증상과 비슷해 알레르기성 비염과 감기 증세를 혼동하는 수가 많다.

감기 증상인 경우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 대부분 1주일 정도면 회복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발작적으로 수차례 이어져 나오는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며 몸에 열이 나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체온을 측정해 보면 체온 상승은 없는 특징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따라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감시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해지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비점막은 외부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같이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찬 공기가 직접적으로 비점막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스카프를 둘러 몸의 체온을 올려줌으로써 바깥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 바퀴벌레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집안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를 자주하고 꾸준하게 생리 식염수를 통해 비강을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집먼지 진드기는 습하고 따뜻하며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잘 번식하고,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진 비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자주 세탁해야 한다. 보통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나 코 점막의 충혈을 경감시켜주는 국소 비충혈 제거제나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두통, 어지럼증, 진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도 한약, 침구 치료, 외용제 도포법, 비강 사혈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한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침치료를 받을 때 코 주위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항진된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환자의 체질에 따른 맞춤 치료를 통해 환자의 면역력이 높아지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 또한 자연스레 경감되게 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쉴새 없이 나오는 재채기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강하게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 고

인문학 둥지에서 만난 '테스형'과 '잡스형'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

요즘 많은 노인들이 지자체의 후원이 많은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을 찾아 노후를 즐기고 있다. 일하는 노인과 그냥 편하게 쉬면서 식사를 대접받고 사는 노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하물며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로 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자존감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시점이 왔다. 요나스 요나손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00살 생일을 맞은 주인공 알란이 양로원을 탈출하면서 시작된다. 100번째 생일 파티를 피해 도망치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해프닝과 그가 지난 백 년간 살아온 인생 역정의 시간들을 재조명해 보지만 그는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또한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며 100세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모험을 즐기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

주인공 알란은 자존감을 불태우며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생각하게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디지털 문명 사회는 직업이 아니라 일 자체에 중점을 두는 사회이다.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 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 할 일이 많다. 어떠한 일도 자존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다르게 하면 브랜드 높은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비교에 따라 자존심을 따지는 것 보다는 청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 스스로 주인이 되어 가는 자존감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모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봉사심도 강하다. 행복이란 남의 시선과 나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존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작고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에서 한 울림을 얻게 된다.

"인간의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사고에 휘둘리는 고리에 얽매이지 마라. 다른 사람 의견들의 소음으로 자신의 내면이 내는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에 따라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나는 최근에 인문학 둥지를 20여 년간 운영하면서 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성진기 전남대 명예 교수님 덕분에 소크라테스와 스티브 잡스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요즘 소크라테스가 뜨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탈출하라는 권유도 물리치고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기에 독배를 들었다. 소위 가황이라 불리운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신곡이 젊은 세대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국민적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테스형을 처음 듣고 갸우뚱해서 가사를 찾아보니 소크라테스였다. 가사에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소크라테스와 식사 한번 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하늘나라 어디에선가 그 두 분 테스형과 잡스형이 만나 '너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Stay hungry, Stay foolish)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우리도 남의 눈치와 남의 평판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나의 진정한 생각,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춤추게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社說

시도지사 회동, 현안 해결의 물꼬 트는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해결의 열쇠를 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만남이 주목된다. 여기에 시도 통합 문제까지 핫이슈로 떠올라 시도지사의 회동 시기와 의제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양 시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말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상생위에 앞서 양측 실국장들이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을 점검하고 논의 안건과 의제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민선 7기 들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시도 공동 관광 전략, 지역 농산물 공동 판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10일 전남도에 행정 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김 지사도 "이달 안에 이 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국정감사와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인 오는 23일이나 26일께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시도지사의 만남이 두 차례 이상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도 소통 창구인 상생위를 1년 가까이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정작 당면 현안의 해결 의지는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랜만에 이뤄지는 이번 시도지사의 만남은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의제로 올리지는 않더라도, 시도 통합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전남·경남 '해상 경계 분쟁' 현명한 판단을

'멸치 황금 어장'을 둘러싸고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7월 경남 선적 멸치잡이 선단이 현행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을 넘어와 전남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마치고 연내에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어민들은 100년 이상 전남도 행정 관할하에 놓였던 해상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경남도와 어민들은 기존 해상경계선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10㎞ 이상 전남 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경계선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다툼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현재 남해 멸치 어획량 통계를 보면 경남이 80%, 전남은 20% 정도다. 만약 경남도 멸치잡이 어선들이 전남 쪽 '황금 어장'에서 조업을 하게 된다면 전남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1만3000(경남 갈도 기준)~2만2000ha(세존도 기준) 규모의 삶의 터전을 잃게 돼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그제 전남도·경남도 권한쟁의 심판 관련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내고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無等鼓

공정과 균형발전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이 국민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열 명 중 일곱 명꼴로 대부분(전체의 73.8%)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한 기회 보장 및 경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0%를 넘었다. 8년이 지난 2018년 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응답자의 74%가 법 집행 면에서, 71%는 소득·재산 분배와 취업 기회에서, 67%는 승진·진급 등에서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공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이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교육·의료·재벌 개혁의 당위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 진척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득권을 마치 귀족 작위처럼 대물림하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한 것이 사실이다. 공정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별개로 불공정함이 익숙해지고, 개선의 기대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세상에 완벽한 공정은 있을 수 없다. 출생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전적인 특징과 함께 성향이나 외모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삶의 모든 순간이 불공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로 일률적인 틀을 만들고 그것에 꿰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적어도 선천적인 차이, 배경이나 외모의 다름, 재산이나 권력의 유무 등에 의한 불공정함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 역시 공정과 연관이 있다. 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 등 각 권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경제 성장과 발전, 국가 시책, 정치적인 이유 등에 의해 권역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면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책임은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 있는 것이다. 1960년대까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가장 앞섰던 호남은 이후 60여 년간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영남권·충청권 등의 '기득권'을 과감히 철폐하고 호남 소외와 낙후의 원인을 찾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균형의 의미에 맞는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기대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